

R

‘부산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인구 유입 방안’

- 인공지능 스마트팜



강민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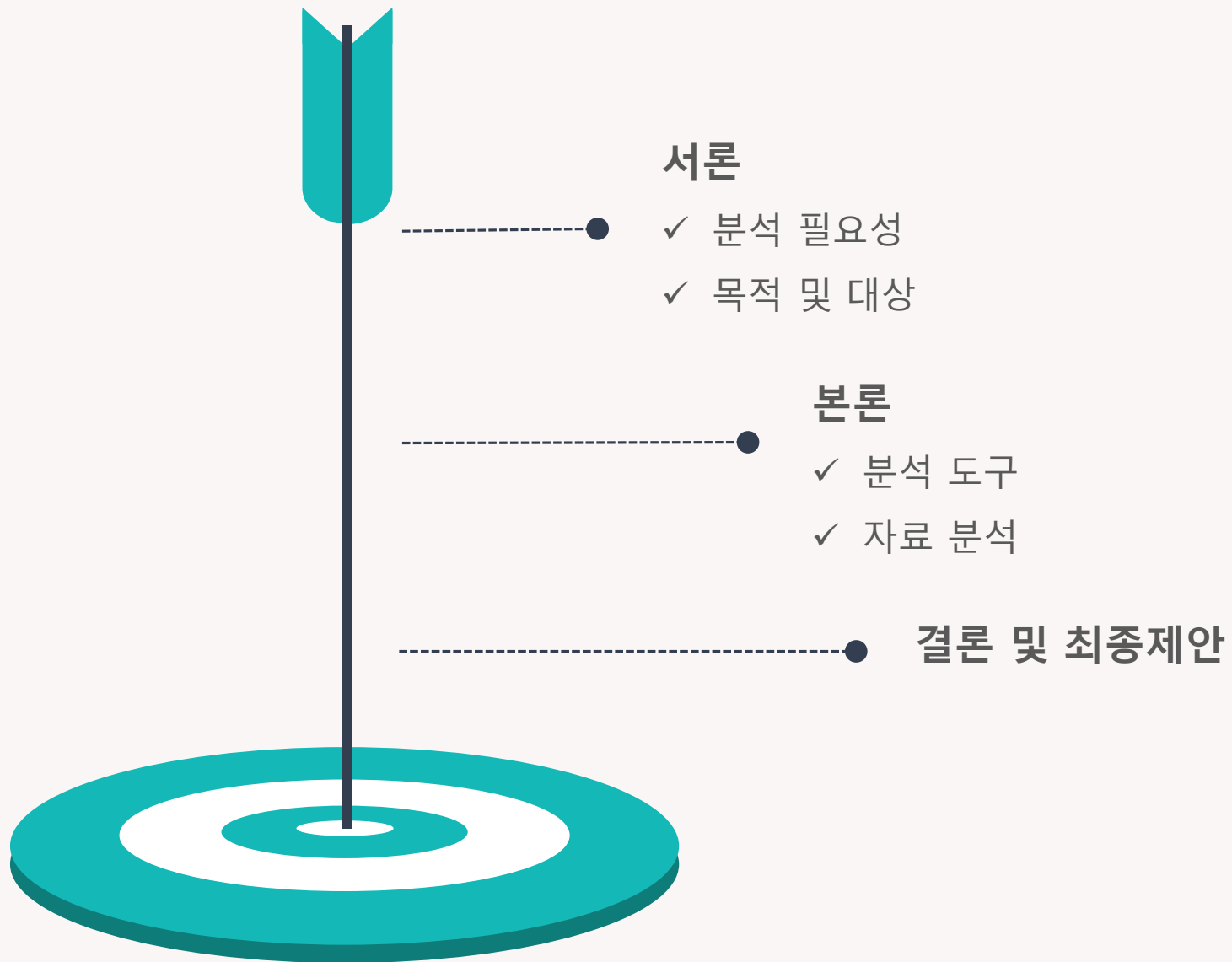
박지영



성채원



조주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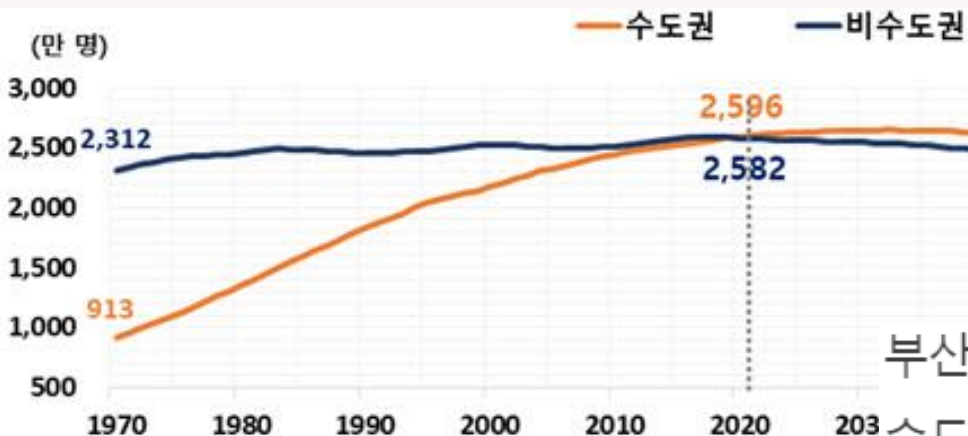


다시 서울로 물리는 사람들...올해 수도권 인구, 비수도권 추월

[중앙일보] 입력 2020.06.29 12:00 수정 2020.06.29 12:12

가 가

사람들이 다시 서울 부근으로 모여들고 있다. 수도권 순 유입 인구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옮긴 인구가 수도권에서 빠져나간 인구보다 많다는 의미다. 올해 수도권 인구는 비수도권 인구를 처음으로 추월할 전망이다.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와 함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 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수도권 쏠림 현상은 심화할 거라는 진단이 나온다.



올해 수도권 인구, 처음으로 비수도권 인구 추월...가장 큰 이유 '이것'

세종=남건우기자 입력 2020-06-29 19:24 수정 2020-06-29 20:48

가 가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직업 때문으로 조사됐다.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구 이동도 수도권을 향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어 교육과 주택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10~30대 등 젊은층이 수도권으로 들어왔고 40대 이상은 2008년부터 수도권에서 순유출하고 있다.

소멸 위험 지역은 20~2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소멸 위험 지수가 0.5 미만인 곳으로,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이번에 소멸 위험 지역에 새로 포함된 시·군·구 중에는 부산 서구, 인천 동구, 대구 서구도 포함됐다. 이 팀장은 "광역 대도시 내 낙후 지역들이 소멸 위험 지역에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부산·경남·대구·경북·광주 5개 시도 인구는 최근 20년간 계속해서 수도권으로 순 유입 했다. 그 규모는 2015년까지 지속해서 감소하다 최근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수도권으로 순 유입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부산(1만4000명)이다. 경남(1만3000명), 대구(1만2000명)가 뒤를 이었다. 반면

삶에 대한 만족도와 근로여건 만족도가
부산시 정주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부산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인구 유입 방안을 알아본다.

[2019 부산 사회조사]
17,860 표본가구 내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 약 33,004명 대상
(조사기간: 2019.8.19~9.8)

주요변수1. 부산시 정주의사



주요변수2. 삶에 대한 만족도



주요변수3. 근로여건 만족도



독립변수

연령대, 월평균 가구소득, 취업애로요인, 직업선택요인, 직업군,
지역민 자부심, 지역 정체성, 소득 만족도

*단계적 회귀분석을 통하여 배경변수 도출

분석 tool



부산시 정주의사

23 귀하는 향후 10년 후에도 부산시에 계속 살고 싶으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약간 그렇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별로 그렇지 않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19 #정주의사(문항23) 클수록 긍정으로 변환
20 busan$opinion2<-6-busan$opinion
21 busan$opinion2
```

부산시 정주의사 opinion2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그저 그렇다
4. 약간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삶에 대한 만족감과 정서 경험

31 귀하의 주관적 웰빙(well-being)을 측정하는 항목입니다.
각 항목별로 해당되는 곳에 ✓ 표시하여 주십시오.

1. 귀하는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귀하는 요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가치 없다 ← 보통 → 매우 가치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24 #삶에 대한 만족도
25 busan$s31<-(busan$s31_1+busan$s31_2)/2
26 busan$s31
```

삶에 대한 만족도 s31

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5. 보통
10. 매우 만족한다

임금근로자 근로여건 만족도

7 귀하는 현재 다니는 직장(사업체)의 근로여건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다음 각 분야마다 해당되는 곳에 ✓ 표시하여 주십시오.

※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비근로자(학생, 주부, 취업준비생 등)는 "⑥ 해당없음"에 ✓ 표시하시면 됩니다.

	① 매우 만족한다	② 약간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불만족한다	⑤ 매우 불만족한다	⑥ 해당없음
1. 하는 일						
2. 임금수준(일에 비해)						
3. 고용안정성						
4. 근무환경(안전, 위생상태 등)						
5. 근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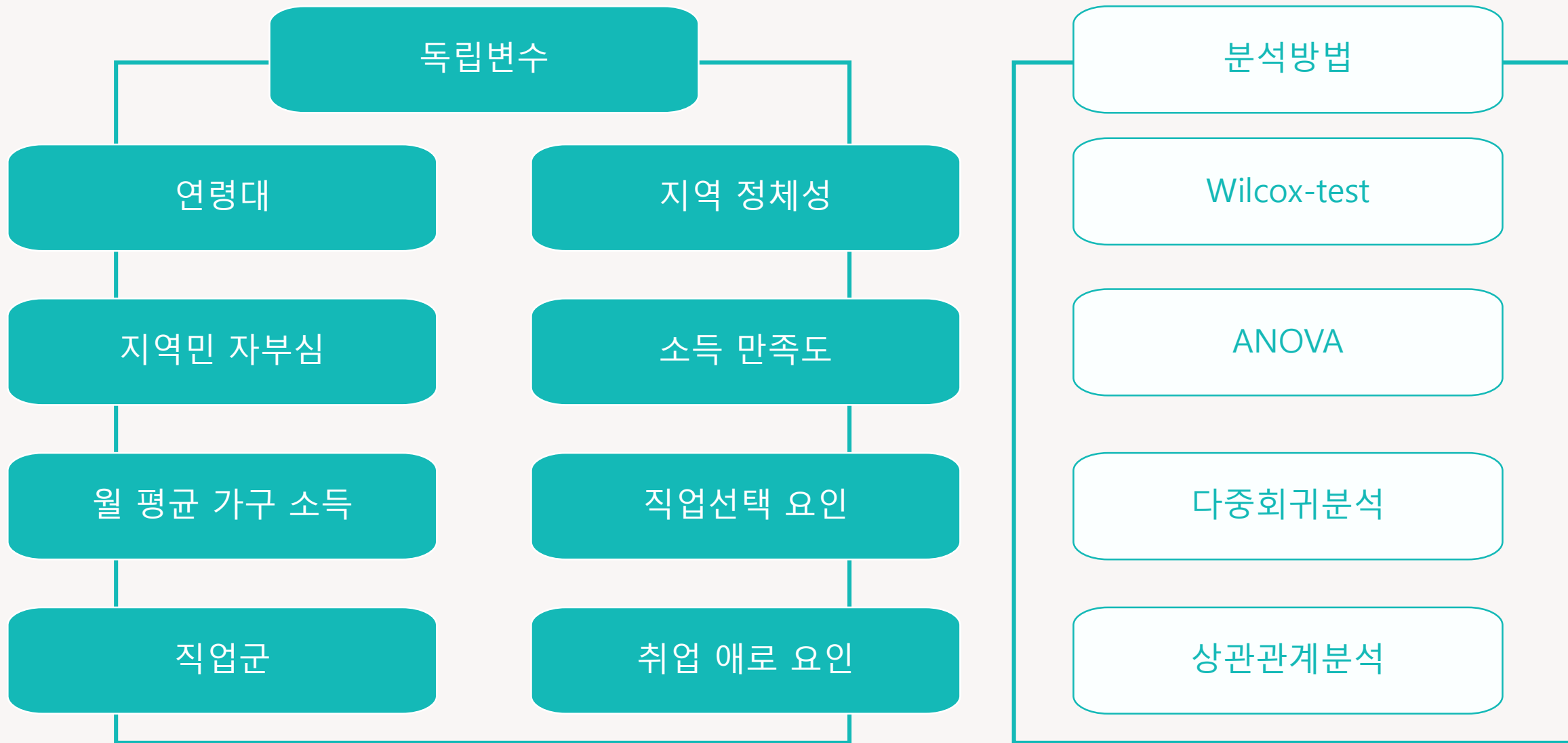
```
12 #임금근로자 근로여건 만족도(문항7) 평균/ 숫자가 클수록 긍정으로 변환 / 결측치 제거 후 w7_na에 저장
13 busan$w70<-(busan$w7_1+busan$w7_2+busan$w7_3+busan$w7_4+busan$w7_5)/5
14 busan$w7<-6-busan$w70
15 busan$w7<-ifelse(busan$w7==0,NA,busan$w7)
16 w7_na<-busan %>% filter(!is.na(w7))
17 busan$w7
```

근로여건 만족도 w7

1. 매우 불만족한다
2. 약간 불만족한다
3. 보통이다
4. 약간 만족한다
5. 매우 만족한다

02

독립변수에 따른 주요변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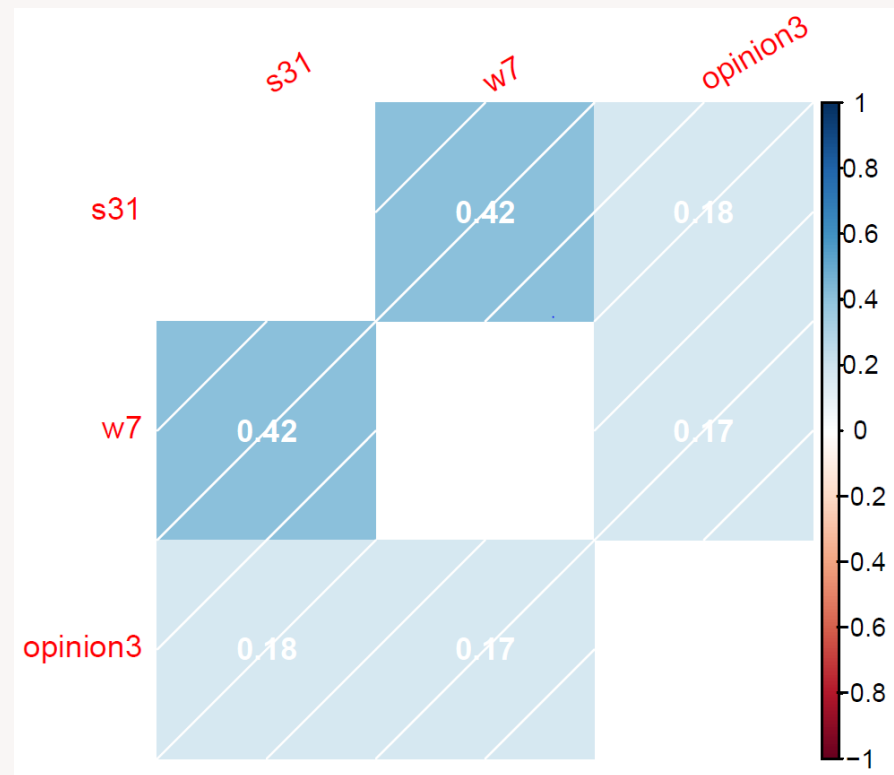


삶에 대한 만족도/ 근로여건 만족도/ 정주의사 간의 상관관계

```

58- ##opinion3/w7/s31 상관관계#####
59
60 w7_na$s31<-(w7_na$s31_1+w7_na$s31_2)/2
61 w7_na$opinion2 <- 6-w7_na$opinion
62 s31 <- w7_na$s31
63 opinion3 <- w7_na$opinion2
64 w7 <- w7_na$w7
65 w7;s31;opinion3
66
67 main_relation <- data.frame(s31,w7, opinion3)
68 main_relation
69 str(main_relation)
70
71 main_relation.cor <- cor(main_relation)
72 main_relation.cor
73 str(main_relation.cor)
74
75 cor.test(~ s31+w7,main_relation)
76 cor.test(~ s31+opinion3,main_relation)
77 cor.test(~ w7+opinion3,main_relation)
78
79 corrplot(main_relation.cor, method = "shade", addshade = "all",shade.col = FALSE, tl.col = "red",
80           tl.srt = 30, diag = FALSE, addCoef.col = "white", order = "FPC") #약한/뚜렷한 양의 상관관계
81

```



- 삶에 대한 만족도와 근로여건 만족도 간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
- 삶에 대한 만족도와 정주의사 간 약한 양의 상관관계
- 근로여건 만족도와 정주의사 간 약한 양의 상관관계


```

130 #연령대 별 삶의 만족도
131 busan$age2;busan$s31
132 tapply(busan$s31, busan$age2, nortest::ad.test)
133 bartlett.test(busan$s31, busan$age2, data=busan)
134
135 as.ano <- oneway.test(s31~age2, busan, var.equal=F)
136 as.ano
137 as.model <- aov(s31~age2, busan)
138 as.comparison <- LSD.test(as.model, "age2", p.adj = "bonferroni", group = T)
139 as.comparison
140
141 #연령대 별 근로여건만족도
142 w7_na$age2[w7_na$age>=15 & w7_na$age<20] <- "10s"
143 w7_na$age2[w7_na$age>=20 & w7_na$age<30] <- "20s"
144 w7_na$age2[w7_na$age>=30 & w7_na$age<40] <- "30s"
145 w7_na$age2[w7_na$age>=40 & w7_na$age<50] <- "40s"
146 w7_na$age2[w7_na$age>=50 & w7_na$age<60] <- "50s"
147 w7_na$age2[w7_na$age>=60] <- "over 60s"
148
149 w7_na$age2;w7_na$w7
150 tapply(w7_na$w7, w7_na$age2, nortest::ad.test)
151 bartlett.test(busan$w7, busan$age2, data=w7_na)
152
153 aw.ano <- oneway.test(w7~age2, w7_na, var.equal=F)
154 aw.ano
155 aw.model <- aov(w7~age2, w7_na)
156 aw.comparison <- LSD.test(aw.model, "age2", p.adj = "bonferroni", group = T)
157 aw.comparison
158
159 #연령대 별 부산시 정주의사
160 busan$age2;busan$opinion2
161 tapply(busan$opinion2, busan$age2, nortest::ad.test)
162 bartlett.test(busan$opinion2, busan$age2, data=busan)
163
164 ao.ano <- oneway.test(opinion2~age2, busan, var.equal=F)
165 ao.ano
166 ao.model <- aov(opinion2~age2, busan)
167 ao.comparison <- LSD.test(ao.model, "age2", p.adj = "bonferroni", group = T)
168 ao.comparison

```



연령대 age



1. 15 ~ 19 -> 10s
2. 20 ~ 29 -> 20s
3. 30 ~ 39 -> 30s
4. 40 ~ 49 -> 40s
5. 50 ~ 59 -> 50s
6. 60 이상 -> over 60s

02

연령대에 따른 주요변수들의 차이

변수	10대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 이상 (6)		F	사후검정 결과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삶에 대한 만족도	5.94	1.65	5.77	1.75	5.92	1.80	5.81	1.76	5.60	1.74	5.48	1.64	66.76***	d<c<b<a a : 1,3 b : 2,4 c : 5 d : 6
근로여건만족도	3.04	0.93	3.22	0.72	3.36	0.76	3.32	0.80	3.17	0.84	3.06	0.83	46.73***	c<b<a a : 3,4 b : 2,5 c : 1,6
부산시 정주의사	3.47	1.06	3.67	1.00	3.84	0.94	3.86	0.95	3.89	0.97	4.12	0.92	223.26***	d<c<b<a a : 6 b : 3,4,5 c : 2 d : 1

* $p<.05$, * $p<.01$, *** $p<.001$

```

172- #3-f42_2 anova#####
173 #월 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삶의 만족도
174 busan$f42_2[busan$f42==1 | busan$f42==2] <- "0~200만 원 미만"
175 busan$f42_2[busan$f42==3 | busan$f42==4] <- "200~400만 원 미만"
176 busan$f42_2[busan$f42==5 | busan$f42==6] <- "400~600만 원 미만"
177 busan$f42_2[busan$f42==7 | busan$f42==8] <- "600~800만 원 미만"
178 busan$f42_2[busan$f42==9] <- "800만 원 이상"
179
180 busan$f42_2;busan$s31
181 tapply(busan$s31, busan$f42_2, nortest::ad.test)
182 bartlett.test(busan$s31, busan$f42_2, data=busan)
183
184 fs.ano <- oneway.test(s31~f42_2, busan, var.equal=F)
185 fs.ano
186 fs.model <- aov(s31~f42_2, busan)
187 fs.comparison <- LSD.test(fs.model, "f42_2", p.adj = "bonferroni", group = T)
188 fs.comparison
189
190 #월 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근로여건만족도
191 w7_na$f42_2[w7_na$f42==1 | w7_na$f42==2] <- "0~200만 원 미만"
192 w7_na$f42_2[w7_na$f42==3 | w7_na$f42==4] <- "200~400만 원 미만"
193 w7_na$f42_2[w7_na$f42==5 | w7_na$f42==6] <- "400~600만 원 미만"
194 w7_na$f42_2[w7_na$f42==7 | w7_na$f42==8] <- "600~800만 원 미만"
195 w7_na$f42_2[w7_na$f42==9] <- "800만 원 이상"
196
197 w7_na$f42_2;w7_na$w7
198 tapply(w7_na$w7, w7_na$f42_2, nortest::ad.test)
199 bartlett.test(w7_na$w7, w7_na$f42_2, data=w7_na)
200
201 fw.ano <- oneway.test(w7~f42_2, w7_na, var.equal=F)
202 fw.ano
203 fw.model <- aov(w7~f42_2, w7_na)
204 fw.comparison <- LSD.test(fw.model, "f42_2", p.adj = "bonferroni", group = T)
205 fw.comparison
206
207 #월 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부산시 정주의사
208 busan$f42_2;busan$opinion2
209 tapply(busan$opinion2, busan$f42_2, nortest::ad.test)
210 bartlett.test(busan$opinion2, busan$f42_2, data=busan)
211
212 fo.ano <- oneway.test(opinion2~f42_2, busan, var.equal=T)
213 fo.ano
214 fo.model <- aov(opinion2~f42_2, busan)
215 fo.comparison <- LSD.test(fo.model, "f42_2", p.adj = "bonferroni", group = T)
216 fo.comparison

```



월평균 가구소득 f42

1. 0~200만원 미만
2. 200~400만원 미만
3. 400~600만원 미만
4. 600~800만원 미만
5. 800만원 이상

02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주요변수들의 차이

변수	0~200 만원 (1)		200~400 만원 (2)		400~600 만원 (3)		600~800 만원 (4)		800만원 이상 (5)		F	사후검정 결과
	M	(SD)	M	(SD)	M	(SD)	M	(SD)	M	(SD)		
삶에 대한 만족도	5.20	1.67	5.69	1.66	6.02	1.67	6.24	1.70	6.60	1.79	443.99***	e<d<c<b<a a : 5 b : 4 c : 3 d : 2 e : 1
근로여건만 족도	2.94	0.82	3.15	0.76	3.33	0.78	3.53	0.77	3.77	0.78	234.16***	e<d<c<b<a a : 5 b : 4 c : 3 d : 2 e : 1
부산시 정주의사	4.05	0.96	3.83	0.97	3.88	0.96	3.88	0.97	4.01	0.93	78.81***	c<b<a a : 1,5 b : 3,4 c : 2

* $p<.05$, * $p<.01$, *** $p<.001$

```

304 #직업선택요인에 따른 삶의만족도
305 w4_0_na$s31;w4_0_na$w4_0
306 tapply(w4_0_na$s31, w4_0_na$w4_0, nortest::ad.test)
307 bartlett.test(w4_0_na$s31, w4_0_na$w4_0, data=w4_0_na)
308
309 w4s.anova <- oneway.test(s31~w4_0, w4_0_na, var.equal=F)
310 w4s.anova
311 w4s.model <- aov(s31~w4_0, w4_0_na)
312 w4s.comparison <- LSD.test(w4s.model, "w4_0", p.adj = "bonferroni", group = T)
313 w4s.comparison
314
315 ##직업선택요인에 따른 근로여건만족도
316 w4w7_na<-busan %>% filter(!is.na(w4_0+w7)) #w4,w7 결측치 제거해서 저장
317 w4w7_na$w4_0
318 w4w7_na$w7
319
320 w4w7_na$w4;w4w7_na$w7
321 tapply(w4w7_na$w7, w4w7_na$w4_0, nortest::ad.test)
322 bartlett.test(w4w7_na$w7, w4w7_na$w4_0, data=w4w7_na)
323
324 w47.anova <- oneway.test(w7~w4_0, w4w7_na, var.equal=F)
325 w47.anova
326 w47.model <- aov(w7~w4_0, w4w7_na)
327 w47.comparison <- LSD.test(w47.model, "w4_0", p.adj = "bonferroni", group = T)
328 w47.comparison
329
330 ##직업선택요인에 따른 부산시 정주의사
331 w4_0_na$w4_0;w4_0_na$opinion2
332 tapply(w4_0_na$opinion2, w4_0_na$w4_0, nortest::ad.test)
333 bartlett.test(w4_0_na$opinion2, w4_0_na$w4_0, data=w4_0_na)
334
335 w4o.anova <- oneway.test(opinion2~w4_0, w4_0_na, var.equal=F)
336 w4o.anova
337 w4o.model <- aov(opinion2~w4_0, w4_0_na)
338 w4o.comparison <- LSD.test(w4o.model, "w4_0", p.adj = "bonferroni", group = T)
339 w4o.comparison

```



직업선택요인 w4_0

1. 명예 · 명성
2. 고용안정성
3. 임금 (수입)
4. 적성 · 흥미
5. 보람 · 자아성취
6. 근무환경(출퇴근 편의성, 복지제도등)
7. 발전성 · 장래성
8. 근로시간

‘9. 기타’ & ‘10. 잘 모르겠다’

-> 결측치 제거

02

직업선택요인에 따른 주요변수들의 차이

변수	명예·명성 (1)		고용안정성 (2)		임금(수입) (3)		적성·흥미 (4)		보람 자아성취 (5)		근무환경 (6)		발전성 장래성 (7)		근로시간 (8)		F	사후검정 결과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삶에 대한 만족도	5.78	1.62	5.71	1.64	5.50	1.71	6.08	1.76	6.23	1.76	5.62	1.74	5.60	1.72	5.58	1.74	70.88 ***	e<d<c<b<a a : 5 b : 4,7 c : 1 d : 2,6,8 e : 3
근로여건만족도	3.47	0.94	3.32	0.81	3.08	0.78	3.42	0.78	3.55	0.76	3.26	0.79	3.37	0.78	3.16	0.80	59.78 ***	e<d<c<b<a a : 5 b : 1,4 c : 2,7 d : 6 e : 3,8
부산시 정주의사	3.92	1.03	3.96	0.96	3.93	0.96	3.88	1.00	3.85	1.00	3.92	0.97	3.92	0.96	3.98	1.01	4.01 ***	b<a a : 2,8 b : 1,3,4,5,6,7

* $p<.05$, * $p<.01$, *** $p<.001$

```

265 #취업애로요인에 따른 삶의만족도
266 w2_na$s31;w2_na$w2
267 tapply(w2_na$s31, w2_na$w2, norstest::ad.test)
268 bartlett.test(w2_na$s31, w2_na$w2, data=w2_na)
269
270 w2s.ano <- oneway.test(s31~w2, w2_na, var.equal=F)
271 w2s.ano
272 w2s.model <- aov(s31~w2, w2_na)
273 w2s.comparison <- LSD.test(w2s.model, "w2", p.adj = "bonferroni", group = T)
274 w2s.comparison
275
276 #취업애로요인에 따른 근로여건 만족도
277 w2w7_na<-busan %>% filter(!is.na(w2+w7))      #w1,w7 결측치 제거해서 저장
278 w2w7_na$w2
279 w2w7_na$w7
280
281 w2w7_na$w2;w2w7_na$w7
282 tapply(w2w7_na$w7, w2w7_na$w2, norstest::ad.test)
283 bartlett.test(w2w7_na$w7, w2w7_na$w1, data=w2w7_na)
284
285 w27.ano <- oneway.test(w7~w2, w2w7_na, var.equal=F)
286 w27.ano
287 w27.model <- aov(w7~w2, w2w7_na)
288 w27.comparison <- LSD.test(w27.model, "w2", p.adj = "bonferroni", group = T)
289 w27.comparison
290
291 ##취업애로요인에 따른 부산시 정주의사
292 w2_na$w2;w2_na$opinion2
293 tapply(w2_na$opinion2, w2_na$w2, norstest::ad.test)
294 bartlett.test(w2_na$opinion2, w2_na$w2, data=w2_na)
295
296 w2o.ano <- oneway.test(opinion2~w2, w2_na, var.equal=F)
297 w2o.ano
298 w2o.model <- aov(opinion2~w2, w2_na)
299 w2o.comparison <- LSD.test(w2o.model, "w2", p.adj = "bonferroni", group = T)
300 w2o.comparison
301
302

```



취업애로요인 w2

1. 공개채용시험 기회 부족
2. 취업정보 습득곤란
3. 취업을 위한 기술교육 기회 부족
4. 인력을 흡수할 산업기반 부족
5. 지방대학 출신자의 불리한 대우
6. 경제력 및 취업연줄 부족
7. 경제사회 전반적인 불안
8. 성차별, 연령제한 같은 각종 차별
9. 기타 -> 결측치 제거

02

취업애로요인에 따른 주요변수들의 차이

변수	공개채용 시험 기회 부족 (1)		취업정보 습득곤란 (2)		기술교육 기회부족 (3)		산업기반 부족 (4)		지방대학 출신자의 불리한 대우 (5)		경제력 및 취업연줄 부족 (6)		경제사회 전반적인 불안 (7)		성차별 연령제한 각종 차별 (8)		F	사후검정 결과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삶에 대한 만 족도	5.81	1.67	5.59	1.66	5.64	1.66	5.85	1.76	5.95	1.68	5.39	1.68	5.62	1.72	5.32	1.71	53.71 ***	c<b<a a : 1,4,5 b : 2,3,7 c : 6,8
근로여건만족 도	3.39	0.78	3.16	0.82	3.17	0.77	3.32	0.82	3.29	0.75	3.07	0.78	3.19	0.81	3.06	0.77	29.42 ***	c<b<a a : 1,4,5 b : 2,3,7 c : 6,8
부산시 정주의사	3.90	0.96	3.97	0.96	3.91	0.96	3.94	0.97	3.79	1.00	3.90	0.93	3.96	0.97	3.92	0.99	7.79 ***	b<a a : 1,2,3,4,6, 7,8 b : 5

* $p<.05$, * $p<.01$, *** $p<.001$


```

463 #직업 1.전문관리 2.사무 3.서비스판매 4.농어업 5.기능노무
464
465 #직업군에 따른 삶의만족도
466 tapply(busan$s31, busan$job, nortest::ad.test)
467 bartlett.test(busan$s31, busan$job, data=busan)
468 js.ano <- oneway.test(s31~job, busan, var.equal=F)
469 js.ano
470
471 js.model <- aov(s31~job, busan)
472 js.comparison <- LSD.test(js.model, "job", p.adj = "bonferroni", group = T)
473 js.comparison
474
475
476 #직업군에 따른 근로여건만족도
477 tapply(w7_na$w7, w7_na$job, nortest::ad.test)
478 bartlett.test(w7_na$w7, w7_na$job, data=w7_na)
479 jw.ano <- oneway.test(w7~job, w7_na, var.equal=F)
480 jw.ano
481
482 jw.model <- aov(w7~job, w7_na)
483 jw.comparison <- LSD.test(jw.model, "job", p.adj = "bonferroni", group = T)
484 jw.comparison
485
486 #직업군에 따른 부산시 정주의사
487 tapply(busan$opinion2, busan$job, nortest::ad.test)
488 bartlett.test(busan$opinion2, busan$job, data=busan)
489 jo.ano <- oneway.test(opinion2~job, busan, var.equal=T)
490 jo.ano
491
492 jo.model <- aov(opinion2~job, busan)
493 jo.comparison <- LSD.test(jo.model, "job", p.adj = "bonferroni", group = T)
494 jo.comparison

```



직업군 job

1. 전문관리
2. 사무
3. 서비스 판매
4. 농어업
5. 기능노무

02

직업군에 따른 주요변수들의 차이

변수	전문관리 (1)		사무 (2)		서비스 판매 (3)		농어업 (4)		기능노무 (5)		F	사후검정 결과
	M	(SD)	M	(SD)	M	(SD)	M	(SD)	M	(SD)		
삶에 대한 만족도	6.44	1.73	6.03	1.71	5.80	1.69	5.88	1.62	5.55	1.69	145.19***	c < b < a a : 1 b : 2 c : 3,4,5
근로여건 만족도	3.52	0.77	3.49	0.75	3.17	0.73	3.11	0.81	2.96	0.77	324.61***	c < b < a a : 1,2 b : 3,4 c : 5
부산시 정주의사	3.94	0.95	3.92	0.94	3.90	0.96	4.21	0.87	3.90	0.96	5.81***	b < a a : 4 b : 1,2,3,5

* $p < .05$, * $p < .01$, *** $p < .001$

02

주요변수 다중회귀분석

삶에 대한 만족도

근로여건 만족도

부산시 정주의사

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VIF
	B	SE	β		
지역민 자부심	0.24	0.03	0.11	8.78***	1.47
지역 정체성	0.15	0.03	0.06	4.77***	1.44
소득 만족도	0.62	0.02	0.32	29.06***	1.15
adj. $R^2 = 0.22, F = 360.5^{***}$					

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VIF
	B	SE	β		
지역민 자부심	0.09	0.01	0.08	7.13***	1.47
지역 정체성	0.04	0.01	0.03	2.82**	1.44
소득 만족도	0.41	0.01	0.43	42.36***	1.15
adj. $R^2 = 0.30, F = 557.3^{***}$					

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VIF
	B	SE	β		
지역민 자부심	0.32	0.02	0.26	20.33***	1.49
지역 정체성	0.23	0.02	0.16	13.17***	1.45
삶에 대한 만족도	0.02	0.01	0.03	2.69**	1.35
근로여건 만족도	0.06	0.02	0.05	3.70***	1.51
adj. $R^2 = 0.18, F = 212^{***}$					

* $p < .05$, ** $p < .01$, *** $p < .001$



▶ 연령대

- 60대 이상 - 삶에 대한 만족도, 근로여건 만족도 **최하**
But 부산시 정주의사 **최상**
- 10대, 20대 - 삶에 대한 만족도 **상** 근로여건 만족도 (20대) **중** But 부산시 정주의사 **최하**

▶ 월 평균 가구소득

- 삶에 대한 만족도, 근로여건 만족 - 월 소득 **높은 순 동일**
- 부산시 정주의사 - 0~200만원 미만 가구 **최상** 200~400만원 미만



- 농어업 - 부산시 정주의사 **최상** But 삶에 대한 만족도, 근로여건 만족도 **하**

부산청년종합실태조사에서도 취업에 관한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청년들은 첫 번째로 '취업할 만한 일자'가 부족하다(34.4%)고 답했다. 취업 준비 비용 문제(13.6%), 경험의 부족(12.4%), 스펙 쌓기(10.6%) 등 부수적인 부분에서 아쉬움을 느낀 청년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부산연구원 서옥순 박사는 "청년 일자"가 20년 넘게 앓고 있는 고질병"이라며 "임금, 복지, 직업훈련 등 중소기업 고용환경의 대대적인 개선 없이는 청년 인재들의 유출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회귀분석

▶ 삶에 대한 만족도

▶ 지역민으로서의 자부심

▶ 지역 정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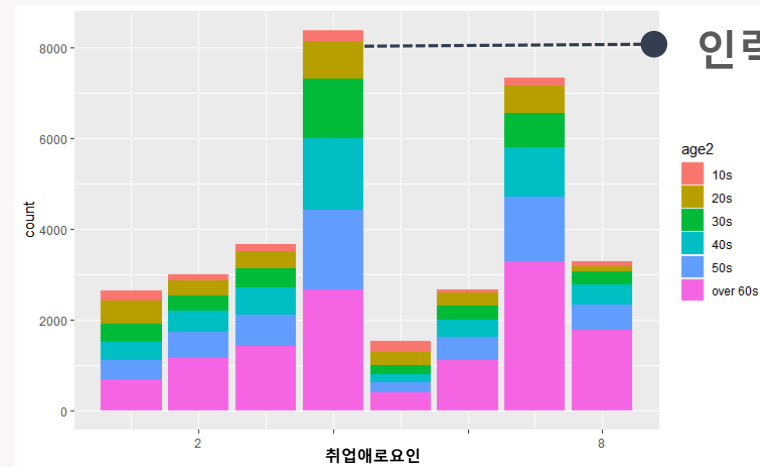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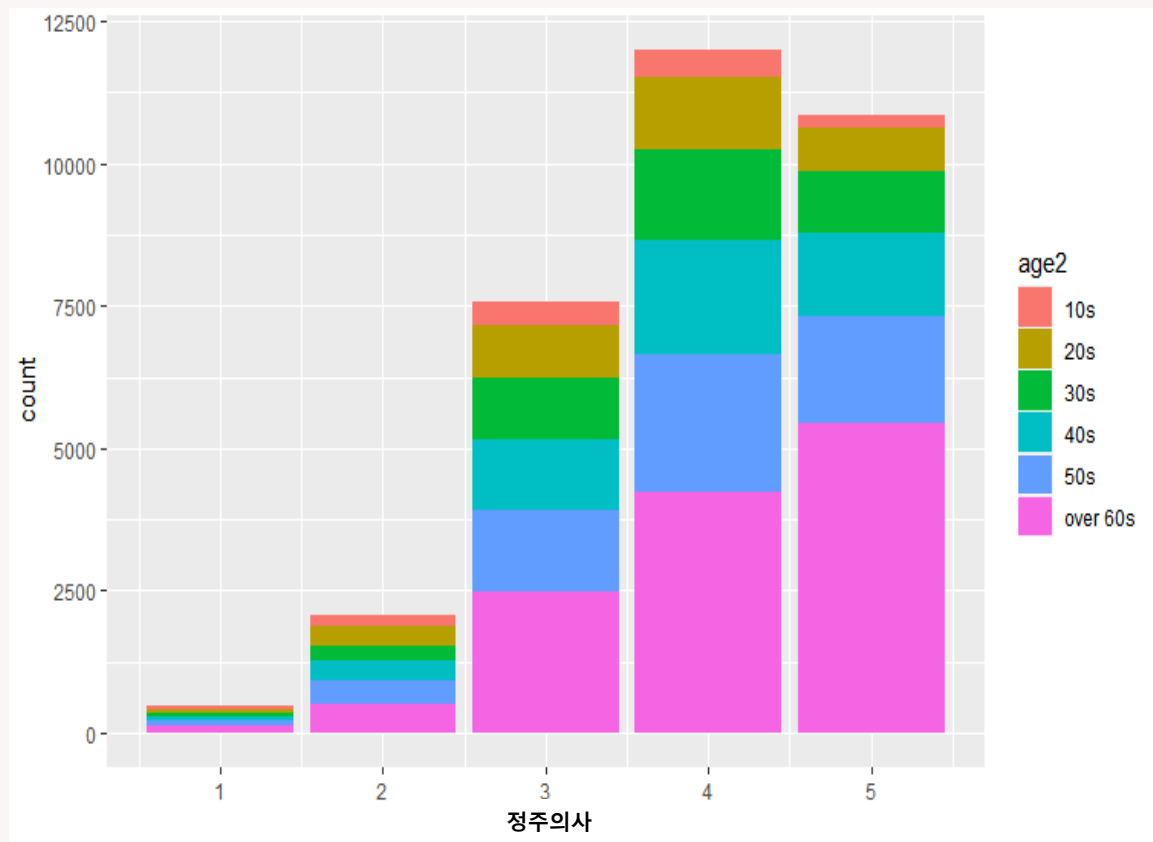
▶ 소득 만족도

▶ 근로여건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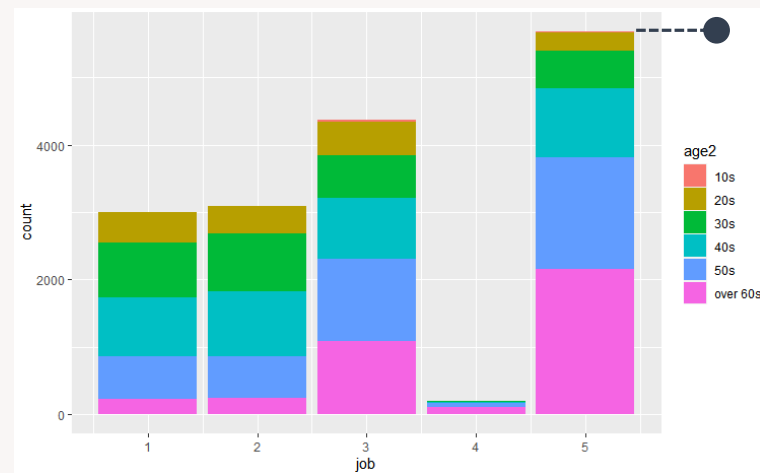
- 상기 5개의 배경 변수 모두 주요 변수에 영향을 줌

03

그래프 분석



● 인력흡수 산업기반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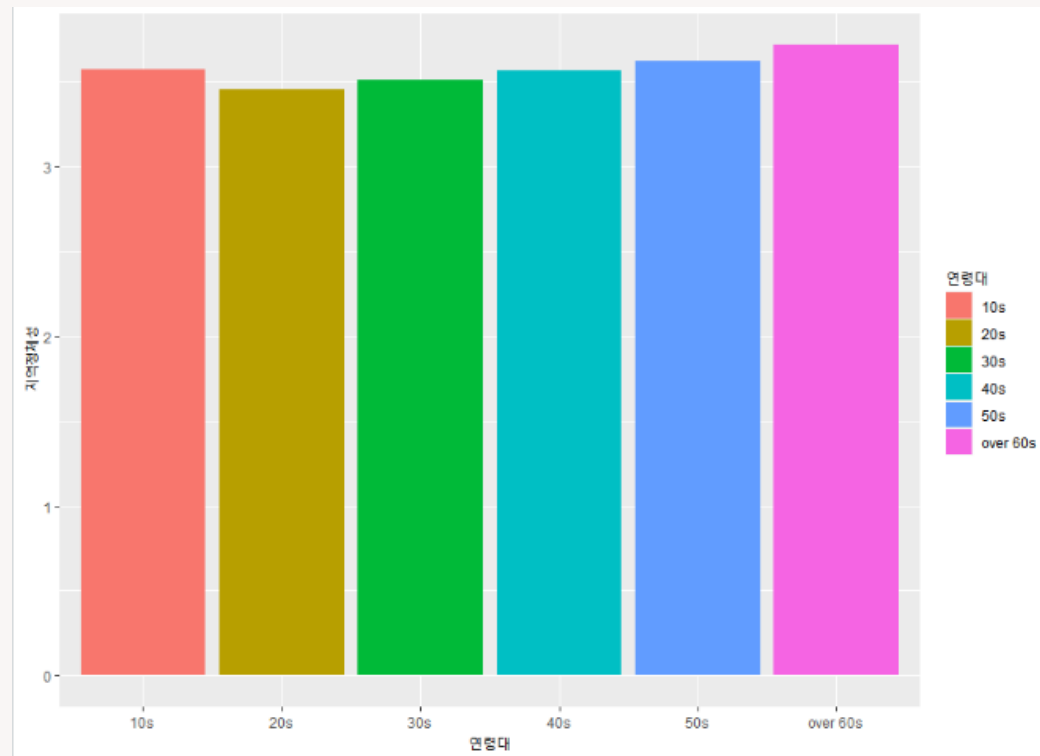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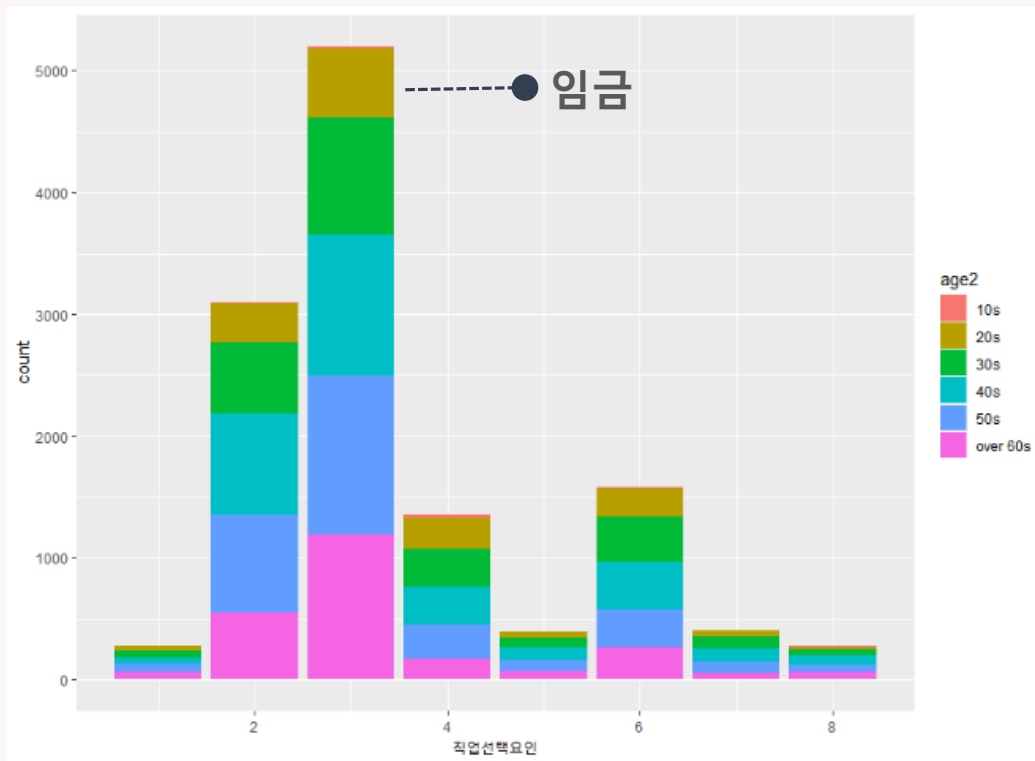


● 농어업

- ✓ 연령대별 정주의사는 노년층 ↑ 젊은층 ↓
- ✓ 연령대별 취업애로 요인 1위는 산업기반 부족
- ✓ 연령대별 직업군의 노년층은 농어업종사자가 ↑

03

그래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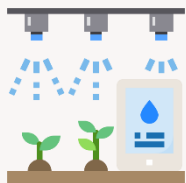


- ✓ 연령대별 직업선택요인: **임금**이 제일 주된 요인
- ✓ 연령대별 지역정체성 : 대체적으로 **20대·30대가 낮음**

**삶에 대한 만족도와 근로여건 만족도가
부산시 정주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 1) 부산시에서는 농어업 종사자의 정주의사 높음
- 2) 부산시 청년 취업애로 요인 1위는 산업기반 부족
→ 청년층을 위한 농어업 산업기반 필요
- 3) 부산시 정주의사는 노년층이 높고 젊은층이 낮음
- 4) 부산시 직업군의 노년층은 농어업종사자의 비율이 높음
→ 노년층의 농어업 노하우 청년층에 전수 가능

→ 스마트팜을 통해 부산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인구 유입 장려



스마트 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원격으로, 자동으로 작물의 생육환경을 관측하고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는 과학 기반의 농업 방식

- ▶ 농산물의 생산량 증가는 물론, 노동시간 감소를 통해 농업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 ▶ 빅데이터 기술과 결합해 최적화된 생산·관리의 의사결정이 가능하며 최적화된 생육환경을 제공해 수확 시기와 수확량 예측 뿐만 아니라 품질과 생산량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음.



스마트팜의 운영원리와 적용분야

- ▶ 생육환경 유지관리 소프트웨어(온실·축사 내 온·습도, CO2수준 등 생육조건 설정)
- ▶ 환경정보 모니터링(온·습도, 일사량, CO2, 생육환경 등 자동수집)
- ▶ 자동·원격 환경관리(냉·난방기 구동, 창문 개폐, CO2, 영양분·사료 공급 등)



ICT 융복합 확산-스마트팜 시설보급

스마트팜의 환경관리, 생장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컨설팅 지원



모델개발사업

농식품 생산·경영·유통·소비 및 농촌분야에 ICT 융복합 적용으로 생산성 향상 및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성과모델 발굴·확산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대출

영농경력 및 자금력 부족 등 청년농업인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스마트팜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에게 필요한 자금 지원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농가의 스마트팜 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농가 문의사항을 해결해주는 콜센터. 재배 방법 또는 시설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시설 점검과 수리를 위한 사후관리 등을 지원

스마트팜 관련 정부 지원 현황

- 스마트팜 혁신밸리



스마트팜 혁신밸리

생산·교육·연구 기능이 집약된 첨단 융복합 지구
(경북 상주 · 경남 밀양 · 전북 김제 · 전남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기대효과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청년창업 보육센터 운영

- ▶ 보육센터 수료 청년 농업인이 초기 시설투자 없이 적정 임대료만 내고도 스마트팜 창업이 가능하도록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 ▶ 스마트팜 창업 또는 승계받거나 규모 확대를 원하는 청년에게도 정책자금, 농지임대, 투자유치 관련 프로그램 지원

임대형 스마트팜 내에 최대한 많은 청년을 유입하기 위하여 소규모 스마트팜 추천
스마트 온실(시설원예)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온실의 온/습도, CO2 등을 모니터링하고 창문 개폐, 영양분 공급 등을 원격 자동으로 제어하여 작물의 최적 생장 환경을 유지 및 관리

소규모 지능형

온실의 경영규모가 1천평 미만의 연동형 시설
간단한 제어 수준을 넘어 복합환경관리를 통해 생산성 향상

스마트 과수원(노지과수)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온/습도, 기상상황등을 모니터링하고 원격, 자동으로 관수, 병해충 관리 등

스마트 노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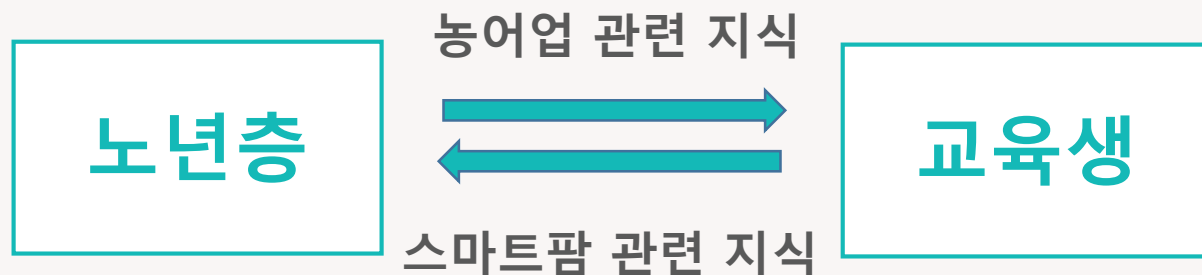
과수원내 병해충 예찰 및 온습도 모니터링을 활용한 관수제어 가능
ICT 융복합 과수재배관리시스템 보급



스마트팜 지역 조성

청년 구직자 대상 스마트팜 지원 사업 추진

-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지역 조성 → 소속감 ↑
- 임대료 및 운영비 지원
- 농어업 직군 노년층과 스마트팜 교육생 매칭



- 1) 2019 부산 사회조사, 부산광역시
- 2) '지방정부여 청년을 붙잡아라', 시사IN, 2019.11.27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723>
- 3) '[부산, 일자리 미스매치] 1. 통계로 본 현황과 진단', 부산일보, 2019.07.14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071419265461934>
- 4) '다시 서울로 몰리는 사람들...올해 수도권 인구, 비수도권 추월', 중앙일보, 2020.06.29
<https://mnews.joins.com/article/23812685>
- 5) '코로나發 고용충격에 수도권 인구유입 2배로 급증...20대가 75%', 연합뉴스, 2020.07.06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726654>
- 6) '97개 시군구 인구 줄어 사라질 위기', 동아일보, 2019.11.15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91115/98369483/1>
- 7) '올해 처음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역전...수도권 집중 다시 심화되는 이유는?', 경향신문, 2020.06.2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6291215011
- 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스마트팜(지능형 농장)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4055>